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24일)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圓寂

해봉당 자승 대종사
(1954~2023)



종단안정 · 전법도생 발원하고 적멸에 들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장례 종단장 엄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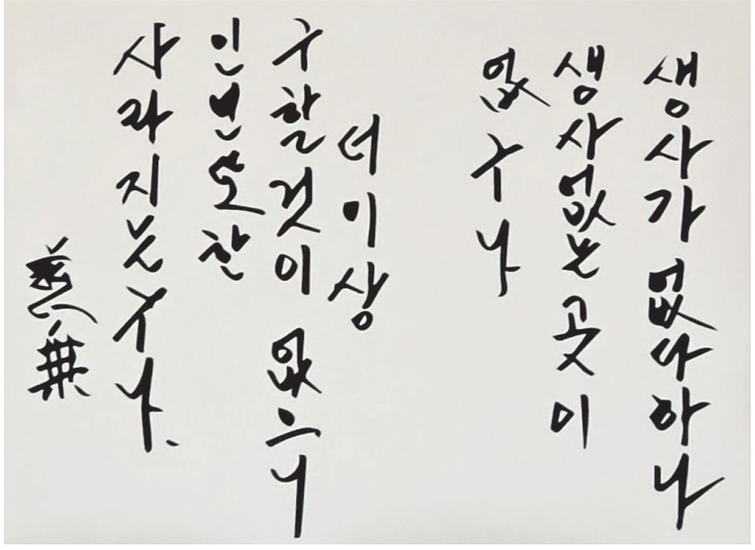
11월 29일 칠장사서 소신공양
법랍 51년, 세수 69세 일기로
조계종, 대종사 법계 긴급 추서
조계사 등 본사에 분향소 마련
스님이 남긴 유언장 일부 공개
'미안함'과 '종단미래 걱정' 담겨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 회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해봉당 자승 대종사〈사진〉가 11월 29일 저녁 안성 칠장사에서 소신공양으로 원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칠장사 요사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 한 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요사채 내부에서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으며, 이는 자승 대종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랍 51년, 세수 69세.

자승 대종사의 원적은 소신공양에 따른 것이었다. 원적 이틀 전만 해도 교계언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상월결사의 행보를 설명해왔던 대종사이기에 온갖 추측성 의혹이 난무했다. 이에 조계종 대변인 우봉 스님은 11월 30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 종단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종사께서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자승 대종사의 법계는 기존 종사에서 원적에 따른 대종사 긴급 추서가 이뤄졌다.

조계종은 지난 2005년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2010년 법정 스님 원적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종사 법계 추서를 결의한 바 있다.

브리핑에선 자승 대종사의 열반송도 공개됐다.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장례를 종단 규정에 따라 前 총무원장 예우 차원에서 종단장으로 거행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와 전국교구본사, 총무원 직영사찰 봉은사 · 보문사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영결식을, 오후에 자승 대종사 재적본사인 용주사에서 다비식을 엄수했다. 〈차주상보〉


해봉당 자승 대종사 열반송.

한편 지난 12월 1일에는 자승 대종사가 남긴 공식 유언장도 공개됐다. 조계종 대변인 우봉 스님은 자승 대종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발견된 유언장 3장을 공개했다. 총 10여 장의 유언장 가운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유언장에 따르면 자승 대종사가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대종사는 유언장에 '총무원장스님께,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적었다. 전직 총무원장으로서 앞서 여러 차례 종단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자승 대종사이기에 현 행정수반인 진우 스님이 앞으로 받게 될 중압감을 걱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성 칠장사 요사채가 자신에 의해 화재로 전소된 것은 상좌 4명이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자승 대종사는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원)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까지 꼭 복원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승 대종사는 스스로 여러 소임을 보면서 수행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안거마다 정진하는 스님들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자승 대종사는 '상월선원과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라고 유언을 남겼다. 다만 다른 유언장 어디에도 대종사의 소신공양 배경이 적힌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모특집 2·3·4·5·6·7면